

공공기관 CEO 혁신 토론회

- 인사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도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혁신 하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하자니까 온 기관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혁신, 혁신하니까 한 번 해보자고 온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나쁜든 혁신은 합니다. 민간 기업에선 혁신을 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민간에서 혁신 다 한다더니 97년에 보니까 별 수 없이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성공해 살았습니다. 문제를 알고 대비했던 기업은 살아남았고 뭔가 제도화된 방식을 채택한 기업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혁신은 필요합니다.

내가 대통령 될 무렵 민영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민영화 대개 이뤄졌으나 그 뒤로도 민영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민영화된 기업 가운데 공기업 시절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 많고, 정부가 통제 안하는데 주주들도 개입 않고 의례적으로 도장만 찍어주고, 이렇게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경영자들이 지배구조 개선하지 주주들이 쫓기해서 새 지배구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와 상관없지만 철도 등 공익사업 민영화 안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 등 네트워크 사업은 민영화할 수가 없는데, 민영 독점의 폐해가 공영 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영 기업은 안 되면 궁극적으로 도산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도산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옵니다. 공기업의 위기입니다. 어쨌든 준정부 기구, 공기업이 끊임없이 민영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도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공기업 문제 제기가 있는 건 비효율 때문입니다. 경영 효율성이 민영기업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이양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기업이 민영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그거 하자고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못했고 체계적인 평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효율성 높이고 보다 투명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평가기준 세우고 평가하고 받고 해서 민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해봅시다. 공무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기업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 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이 증명하십시오. 공무원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은 개방하고 민영기업 가지 마라하고 공기업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공직자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엘리트가 아닙니다.

엘리트의 첫 조건이 자기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지적만 받고 있는데 뛰어 넘자는 것입니다. 민영 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후배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꼭 성공시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좋은 사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유익한 학습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